

다시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만나지 말자.



장 금 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올 봄은 너무 덥다. 서울의 낮 온도가 30℃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때 이른 더위에 모두 헉헉대며 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반팔 옷을 입고 다닌다.

지구온난화로 봄이 실종되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 인간의 생활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이들이 더욱 많다.

우리 축산업계, 특히 양계산업은 이른 더위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시기가 일

찍 종료될 것이란 기대를 했는데, 갑작스런 발생과 광범위한 확대로 피해가 심각하다.

이른 더위로 우리가 방심한 것이 조류인플루엔자의 광범위한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반성도 있다.

‘방심’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여야 할 최대의 적이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관련해 방심했던 양계산업을 돌아보자.

첫째,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걱정이나 위기 의식에 대한 방심이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축산 관련인과 일반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지나친 위기의식이 문제되지 않는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전혀 소비하지 않아 양계산업과 오리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 만큼 심각했다. 관련업계의 항의로 마스크는 태도를 바꿔 조리된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 그 덕분에 두 달 만에 위기를 벗어나 오히려 호황기를 누리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위기의식을 지나치게 약화시킨 것은 아닐까? 이번 발생에 대해서도 마스크들은 보도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조장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고, 모든 보도는 ‘조리한 닭고기는 괜찮다.’로 마무리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조류인플루엔자가 괜찮다’고 착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래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아닐까?

둘째,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대처에 대한 매뉴얼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며 확산 방지 및 상황 조기종료를 자신했다.

훌륭한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뉴얼 자체가 무엇을 해주지는 않는다. 매뉴얼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잘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유통성을 응용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그렇게 했다고 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매뉴얼은 오히려 방심의 '구멍'이 된다.

셋째, 농가들의 조류인플루엔자와 방역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이제 우리는 알만큼 안다고 자부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일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잘 한다고 해도 일부에서 발생되고 전파를 시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데도 닭이나 오리를 실은 차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질병이 확산된 이번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넷째, 소독 방역에 대한 방심이다. 정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다. 양계장에서는 별도로 소독약을 구입하지 않고도 충분한 양의 소독약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행된 예산이다.

양계장에서 이 소독약을 제대로 사용하여 방역을 한다면 이번처럼 발생하거나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독약 선택, 구매, 농가로의 공급, 농가에서의 사용 등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의 영향도 받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을 생각하여 결

정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우리 농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방역당국이 아무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대책 매뉴얼을 세워 놓아도, 중요한 선거가 있어도, 나는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우리끼리 받아 준다 해도, 실제로 바이러스를 막아낼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바이러스는 기회를 잡아 극성을 부리고 또 다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의 돈이 욕심난다 해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간다면 그 고통과 불행은 아주 많이 줄어든 것이다.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하려면, 닭고기나 오리 고기를 익혀 먹는 것 보다 방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고통 받는 농가가 없었으면 좋겠다. 병에 걸린 닭을 쉽게 매몰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농가, 텅 비어 버린 농장을 보고 허탈해하며 당장의 삶을 걱정하는 농가도 없어야 하고, 며칠씩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밤을 새며 고생하는 공무원이나 관련된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문어버린 닭들로 인해 땅이 심하게 오염되 지나 않나 하는 걱정도 없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그 불쌍한 닭들이 무참히 땅 속에 묻혀가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

봄이 오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를 마주칠 걱정 없이 피어나는 꽃들과 푸르러가는 자연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